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국내 최대 사이니지 '룩스' 공개

3면

인촌기념회·동아일보,  
제39회 인촌상 시상식 개최

4면

"현장에서 바로 합격해 뜻깊어"  
2025 리스타트 잡페어 성황리 개최

## 서울의 새로운 빛

# Luux 오픈



너의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미래,  
같이

일민미술관

신분박물관 MUSEUM

여기서  
A  
뉴스함

동아일보

iPhone 17 Pro

# 국내 최대 사이니지 '룩스' 공개

## DAMG 역량 결집한 새로운 성장동력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 새로 설치된 국내 최대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가 15일 공개됐다. 광화문 일대를 찾는 시민과 외국인들은 룩스의 압도적인 크기와 다채로운 콘텐츠에 시선을 빼앗겼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가 15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가로 50m, 세로 60m의 룩스는 총 면적 3000㎡로, 농구장 7개를 합친 규모다. 국내 전광판 중 최초로 'J'자 형태의 원통형 곡면부를 구현해 세종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북·서·남측 등 세 방향에서 화면을 볼 수 있다.

룩스는 '보다(look)'와 '빛(lux)'을 결합한 이름으로, 시민 참여가 더해지는 미디어 플랫폼을 지향한다. 생중계 시스템을 갖춰 K팝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다. 청계광장 등 광화문 일대의 공간과 연계한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실제로 17일에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 야외도서관'과 협력해 '북을불굴-불망·

물멍 그리고 책멍' 특별 행사가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장작불 영상을 배경으로 가을밤 '불멍'을 하며 책을 읽는 행사가 펼쳐졌다. 또 룩스는 당근마켓과 손잡고 시민 참여 이벤트인 '동네방네 자랑회'를 진행한다. 15일부터 결혼, 출산, 입학, 취업 등 다양한 일상 이야기를 사연으로 받은 뒤 선정된 내용을 28일부터 룩스를 통해 공개한다.

룩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공연과 유튜브 예능들도 속속 공개될 예정이다. 28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배우 김민수가 등장하는 영상은 촬영을 마쳤고,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콘서트가 룩스를 통해 생중계되는 '오픈 스테이지'도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광화문을 넘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룩스는 동아미디어그룹(DAMG)의 다양한 조직이 협업해 탄생했다. 시공·운영 시스템 구축TF에는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분부를 중심으로 AD본부·경영지원국·재경국, 동아닷컴 뉴스테크팀이 함께했다. 또 콘텐츠TF에는 경영전략실, 채널A 편성전략본부, 스튜디오E, 스튜디오D, 보도본부와 채널A B&C 등이 머리를 맞댔다. 룩스 오프닝 이벤트의 총감독을 맡은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 김상하 팀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미디어 사이니지인 만큼 차별점을 고민했다"며 "다양한 콘텐츠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주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너에게 우주를 줄게' 등 주목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한 채널A B&C 최윤상 대

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로 룩스를 더욱 빛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룩스의 운영으로 DAMG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DAMG가 크기와 활용도 등 다방면에서 압도적인 캔버스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고기정 미디어솔루션본부장은 "룩스는 '또 하나의 미디어'로 기획됐고 그렇게 자리 잡을 것이다. 화제성에 국한되지 않고 콘텐츠 전달력 강화 등 매체적 특성을 갖춘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룩스는 정식 운영 전 전자파 검사도 무사히 마쳤다. 국가공인센터인 구미대 산학

협력단 전자파센터가 동아미디어센터 사무실의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 룩스는 전원이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모두 20dBμV/m 미만으로 측정됐다. 이는 냉장고·TV 등 가정용 전자기기(30~37dBμV/m)의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다.

룩스 완공으로 동아미디어센터 사무실의 근무 환경도 변하게 되면서 동아일보 경영지원국과 채널A 경영지원본부는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실내 조도 개선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솔루션본부 C팀 최동수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희철

## 룩스 CMS 자체 개발한 동아닷컴 "신규 비즈니스로 확장"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5 서울레이스'에서는 채널A의 중계차와 드론으로 촬영한 생중계 현장 영상을 처음으로 사이니지 CMS를 활용해 룩스로 송출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송은석



동아닷컴에서 자체 역량으로 개발한 사이니지 CMS 화면.

동아미디어그룹이 국내 최대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를 통해 실시간으로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사이니지 CMS(Content Management System)'가 자리 잡고 있다. 룩스에 내보낼 콘텐츠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사이니지 CMS는 동아닷컴에서 기획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맡았다. 2022년 12월 동아일보 지면·디지털 CMS '디프티'를 개발했던 경험을 토대로 미디어 사이니지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 이를 통해 동아닷컴은 사이니지 CMS의 시스템 유지보수와 기능 개선 등을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사이니지 CMS는 사전 제작된 영상

송출은 물론 라이브 송출까지 가능하다.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5 서울레이스'에서는 채널A의 중계차, 드론과 사이니지 CMS가 완벽하게 결합해 룩스 생중계가 이뤄졌다. 사이니지 CMS의 제어를 통해 룩스는 2분할, 4분할 등 다양한 화면 구도로 1만 2800여명의 참가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선보였다.

여기에 동아닷컴은 사이니지 CMS를 PC와 함께 모바일 버전으로도 개발해 운영 담당자가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룩스 송출 상황을 확인하고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이니지 CMS에는 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유튜브 링크나 웹페이지 URL(인터넷 주소)만 올려도 바로 룩

스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해 호환성을 극대화 했다.

동아닷컴은 이번 사이니지 CMS 개발을 발판으로 다른 옥외 전광판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건설링을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도 준비 중이다. 개발을 총괄한 동아닷컴 오준선 뉴스테크팀장은 "룩스는 신문, 방송, 디지털에 이어 동아미디어그룹의 '제4의 매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 내 사이니지 CMS 통합 운영과 외부 업체 공급 비즈니스까지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지민구



# 인촌기념회·동아일보, 제39회 인촌상 시상식 개최

해밀학교(교육)-신달자 시인(언론·문화)-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인문·사회)-김범준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 수상



9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인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 신달자 시인, 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 김범준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사진=편집국 사진부 홍진환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9회 인촌상 시상식이 9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인촌상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선생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진강)와 동아일보는 인촌 선생의 탄생일인 10월 11일에 맞춰 매년 시상식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올해 수상자는 ▲해밀학교(교육) ▲신달자 시인(언론·문화)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인

문·사회) ▲김범준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로 각각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진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촌상 수상자들은 인촌 선생께서 민족의 독립과 산업 발전을 위해 토대를 쌓은 교육, 언론·문화,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탁월한 공적을 쌓았다”며 “올해 수상자들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난 공적을 이뤘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준다”고 했다.

해밀학교는 가수 인순이로 알려진 김인순 이사장(68)이 2013년 강원 홍천군에 설

립했다. ‘흐린 하늘이 갠 뒤 밝게 빛나는 배움터’라는 뜻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학교다. 김 이사장은 “제 사춘기가 힘들고 길었는데,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 옆에서 열심히 살면 아이들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인촌상을 받게 됐다”고 했다. 신달자 시인(82)은 1964년 여성지 ‘여성’에 시 ‘환상의 방’이 당선됐고, 박목월 시인의 추천을 받아 문단 활동에 나섰다. 여성 특유의 심미감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삶의 고뇌를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하며 시 세계를 확장했다. 신 시인은

“제가 상상도 못한 인촌상을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소식에 눈이 젖어왔다”고 말했다.

김병연 교수(63)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에 일어나는 경제 변화 등을 연구하는 ‘이행기 경제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김 교수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보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려는 노력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범준 교수(49)는 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일반적인 물리 법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리듬 산화물을 연구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김 교수는 “교육과 문화의 힘으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인촌 김성수 선생님의 뜻이 인재를 길러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데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니 수상이 무겁고 따듯한 당부로 느껴진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엔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장석영 대한언론인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 공연은 동아국악콩쿠르 입상자 중심으로 구성된 퓨전 국악공연팀이 펼쳤다.

편집국 문화부 사지원

## 채널A 신개념 요리 서바이벌 ‘마스크 셰프’ 31일 첫 방송



31일 첫 방송되는 '마스크 셰프'는 마스크로 정체를 감춘 도전자들이 오직 '맛' 하나만으로 승부를 겨룬다. 특히 심사위원 3인(강례오, 김도윤, 정지선 셰프)은 1라운드에서 우승한 도전자에게 지목을 받을 경우 2라운드 요리 대결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채널A의 신규 요리 서바이벌 <마스크 셰프>가 31일 시청자들을 만난다. 마스크 셰프는 마스크로 정체 감춘 도전자들이 오직 맛 하나만으로 대결하는 신개념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다.

요리 대결을 이끌 MC로는 방송인 서장훈이 출격하고 강례오, 김도윤, 정지선 등 유명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합류한다. 특히 이들 '스타 셰프' 3인은 심사위원으로 활약할 뿐 아니라 1라운드 대결에서 승리한

도전자와의 대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제작진은 마스크 셰프를 통해 도전의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각오다. 승리와 패배가 분명히 존재하는 요리 대결이지만 마스크를 벗을지 말지는 오직 출연자의 선택으로,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하정석 PD는 “가면을 쓰고 링 위에서 요리하는 모습은 단순히 ‘맛있다’, ‘맛없다’라는 평가를 넘어 도전자의 용기의 표현”이라고 했

다. 오직 맛 하나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링 위의 복면 요리 대결인 마스크 셰프는 31일 금요일 오후 9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송수하

## “현장에서 바로 합격해 뜻깊어” 2025 리스타트 잡페어 성황리 개최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박람회인 '2025 리스타트 잡페어'가 9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72개 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해 110개 부스를 마련했다. 청년, 경력보유 여성, 5060세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 등 4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개막식에서 “올해 13년째인 리스타트 잡페어가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정부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김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총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영환 고용노동부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노용석 중소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영올드관'과 '창업관'이 신설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5060세대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한국폴리텍대 부스에는 행사가 열린지 4시간 만에 300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리스타트 잡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72개 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해 110개 부스를 마련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희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 창업관에서 한국콜마 인사담당자가 화장품 창업이나 관련 분야 취직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 채용 열기도 뜨거웠다. 스타벅스,

쿠팡, hy(옛 한국아쿠르트) 등이 부스에서 면접과 채용까지 이어갔다. 스타벅스는 행사 이틀간 현장에서 5명의 구직자를 뽑았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모 씨(35)는 “경영지원 직무에서 7년간 일하다 퇴직했는데 관

심 있던 스타벅스 바리스타 일에 도전해 현장에서 바로 합격까지 하게 돼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편집국 산업2부 남혜정

## 채널A 기자협회 축구대회 준우승, 동아일보 3위



제51회 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채널A 축구팀(왼쪽)과 3위에 오른 동아일보 축구팀.



채널A가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서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다. 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서 역대 최다인 7차례 우승했던 동아일보는 3위에 올랐다.

채널A는 9월 27일 서울 노원구 마들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2015년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다. 채널A는 YTN과의 결승전에서 1대 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대 5로 아쉽게 패했다. 결승전에서 필드골을 넣은 조민기 기자는 “득점 후 관중석을 보는데 동아일보 선수들까지 환호 해주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터질 듯 벅찼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대회에 참가한 최창규 부장은 “후배들과 10년간 함께

뛰었다는 것 자체가 큰 자부심”이라고 했다. 지난해까지 8강이 최고 성적이었던 채널A는 올해 예선부터 16강전까지 3경기 동안 13골을 넣으며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최준호 기자의 승부차기 선방 등 탄탄한 수비까지 갖춰 우승 문턱까지 다가선 채널A를 두고 기자협회는 “이번 대회 최대 파란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했다.

예선 3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인 동아일보는 준결승에서 우승팀 YTN에 석패했다. 동아일보는 전반전 내내 우세를 점했지만 후반전 불의의 일격을 허용하며 패했다. 우수선수상을 받은 김재형 기자는 “저연차 선수들이 골을 넣고 주전으로 자리 잡는 등 세대교체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9월 13일 서울 성북구 서경대 풋살파크에서 열린 제3회 기자협회 여성회원 풋살대회에 참가한 동아일보와 채널A 풋살팀은 모두 1회전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지난해보다 향상된 기량과 조직력을 보였다.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는 “후배들과 폭염, 폭우를 이겨내며 함께 호흡을 맞춘 그 과정 자체에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채널A 김승희 기자는 “내년에는 꼭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보도본부 편집1부 김태욱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희철

## 2025 사원확장 캠페인 ‘같이, 틱우다’ 진행 구독 패키지 상품 구성 12종→48종 확대

동아일보 마케팅본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아미디어그룹 사원을 대상으로 ‘같이 가치, 틱우다’ 사원확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임직원 한 명당 우리 쌀 2kg을 구매해 소외계층에게 후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사원확장 캠페인의 특징 중 하나는 구독 패키지 상품 구성이 기존 12종에서 48종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박스, 퍼블리, 윌라 등 제휴 상품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동아미디어그룹의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구독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단기 구독 상품인 6개월(0.5부), 3개월(0.25부) 구독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마케팅본부 조두현 전략기획파트장은 “단기 구독도 실적으로 인정해 사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확장은 처음이지?’ 이벤트도 마련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구성원들은 신규 확장 1부만 해도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받는다.

캠페인을 마친 뒤 우수 확장 사원에게는 확장우수상(신규+재연결+유지)과 관리우수



상(신규+재연결+유지)을 시상한다. 확장우수상은 개인 부문을 통해 ▲대상 1명 500만원 ▲금상 2명 300만원 ▲은상 3명 200만원 ▲동상 4명 1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한다. 단체 부문은 국·실(최대 500만원)과 계열사(최대 300만원)를 분리해 시상한다. 또 관리 우수상은 ▲200부 이상(80만 원 상당 상품) ▲100부 이상(50만 원 상당 상품) ▲50부 이상(30만 원 상당 상품) ▲30부 이상(20만 원 상당 상품) ▲20부 이상(10만 원 상당 상품) ▲10부 이상(갤럭시 버즈 FE) ▲3부 이상(코펠 텀블러)을 시상한다.

마케팅본부 마케팅총괄팀 박선

### 수상 소식

편집국 김형민, 이민아, 박종민, 한재희 기자  
광고주협회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신문기획상 수상



동아일보 편집국 디지털랩의 김형민 기자(사진 왼쪽부터), 산업1부의 이민아·박종민 기자, 경제부의 한재희 기자가 기획한 ‘코러스노믹스 2.0’에서 뛰어난 한국 기업들’ 시리즈가 ‘2025 한국광고주대회 KAA어워드’

에서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신문기획상’에 선정됐다. 광고주협회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도전과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편집국 구민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언론인상 수상



구민기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기자(사진)가 검정 수사권 조정 후 발생한 수사 지연 상황을 단독 보도하는 등 대책 제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우수 언론인상을 받았다.

보도본부 백승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



백승우 채널A 보도본부 사회부 기자(사진)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여하는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받았다. 우수 법조언론인상은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 출입기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 신간소개

우리는 모두 이불에서 태어난걸요  
편집국 봉주연



동아일보 편집국 편집부 봉주연 기자가 두 번째 시집 ‘우리는 모두 이불에서 태어난걸요’를 펴냈다. 봉기자는 지난해 시집 ‘두 개의 편지를 한 사람에게’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신간은 대표작인 ‘주소력’을 비롯해, ‘손다운 손’, ‘델마’ 등 52편의 시를 담고 있다. 출판사는 “생의 질감과 세부를 촘촘하게 포착해낸 시를 묶은 시집”이라고 평가했다.